

BYOD: 전 세계적 관점

직원 주도의 혁신 이용

Joseph Bradley
Jeff Loucks
James Macaulay
Richard Medcalf
Lauren Buckalew



개요 요약

BYOD가 미국 또는 “미국 대기업” 만의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Cisco® Internet Business Solutions Group (IBSG)은 당초 실시했던 “BYOD 및 가상화” 연구 조사의 범위를 3개 지역, 8개 국가의 대기업(직원 1,000명 이상)과 중견 기업(직원 수 500-999명)으로 확대해 재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BYOD의 성장이 미국이나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BYOD에 대한 시각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남:
아시아 및 남미 국가는
BYOD를 광범위하게 수용
및 장려하는 반면, 유럽은
우려와 제한적인 수용
자세를 드러냄

전반적으로 나타난 주요 결과 및 결론:

- BYOD는 전 세계적인 현상: 모든 지역에서 직원이 개인용 장치를 업무에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 - IT 부서 중 89%가 어떠한 형태로든 BYOD 지원
- BYOD가 회사에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은 생산성 향상, 직원 만족도 개선, 비용 절감 - IT 리더 중 69%가 BYOD에 “긍정적”
- 직원들은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직장 생활의 병행을 위해 BYOD를 원함
- BYOD는 직원 주도의 혁신이라는 변화의 이점 제공 - 직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회사는 한 차원 높은 가치 실현
- 단, BYOD는 보안과 IT 지원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수반
- 회사들은 개선된 모바일 정책과 비용 절감 전략으로 BYOD에 대응해야 함 - 데스크탑 가상화가 도움이 될 수 있음

지역 및 회사별로 나타난 주요 결과

- BYOD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중견 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적음
- BYOD에 대한 시각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남: 아시아 및 남미 지역의 회사는 BYOD를 광범위하게 수용 및 장려하는 반면, 유럽은 우려와 제한적인 수용 자세를 드러냄
- 미국은 BYOD 수용과 정책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음
- 미국과 인도는 데스크탑 가상화에 있어서 큰 격차로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음: 다른 국가 IT 리더들은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구현에서 뒤쳐짐



Internet Business
Solutions Group (IBSG)

직원들이 업무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 장치의 수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여, Cisco IBSG는 여러 회사에 BYOD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리고 지원, 네트워크 액세스 및 보안의 측면에서 회사 IT 부서는 이러한 새로운 장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했습니다.

서론: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BYOD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직원¹이기도 한 수백 만 명의 소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최신 모바일 장치를 개인용²으로 구입하여 실생활의 편의를 더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장치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화상 회의에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 개인용/엔터테인먼트용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용까지 포함하여 수백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고 일상 업무 과정에 접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흔히 “Bring Your Own Device” (BYOD)라고 합니다.

BYOD는 회사에서 네트워크와 모바일 장치는 물론, “업무 중”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는 직원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Cisco IBSG는 여러 회사에 BYOD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리고 지원, 네트워크 액세스 및 보안의 측면에서 회사 IT 부서는 이러한 새로운 장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회사 IT 부서가 BYOD에 긍정적인지, 무관심한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2012년도 봄에 당사에서 지속적으로 실시 중인 “Horizons” 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대기업의 IT 의사 결정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질문과 다른 질문을 포함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³. 이 조사 결과 대기업이 장치를 지원하고 할당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IT 의사 결정권자 중 95%가 자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BYOD를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BYOD에 대한 태도에서도 중요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BYOD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와중에도 76%가 IT 부서에 BYOD가 “다소” 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BYOD가 미국 또는 “미국 대기업” 만의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초 실시했던 연구 조사의 범위를 3개 지역, 8개 국가의 대기업(직원 1,000명 이상)과 중견 기업(직원 수 500-999명)의 IT 의사 결정권자로 확대해 재조사했습니다. 또한 최초 조사 대상이었던 대기업 응답자 600명에 미국 중견 기업의 IT 의사 결정권자 300명을 추가했습니다⁴(그림 1 참조). 18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4,900명에 가까운 IT 의사 결정권자를 인터뷰했으며, 모두 회사의 모바일 정책을 직접 수립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림 1. Cisco IBSG Horizons 전 세계 BYOD 연구 조사 세부 내용.



출처: Cisco IBSG, 2012

N = 4,892

적절한 관리와 BYOD를 지원하는 통제 모델을 바탕으로 BYOD를 발전시킨다면 회사에서는 단순히 직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이고 강력한 가치의 원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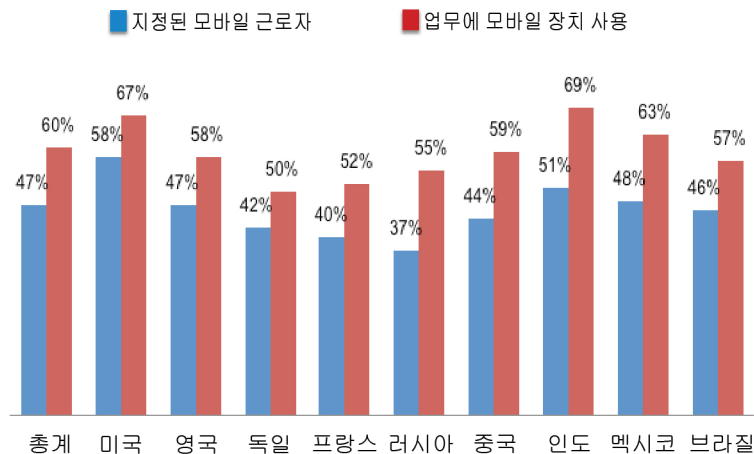
이번 조사 결과로 BYOD가 미국만의 현상이나 대기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과 중견 기업을 막론하고 89%의 IT 리더가 어떤 형태로든 BYOD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9%가 BYOD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단지 미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들이 BYOD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이 장치를 할당하고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제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Cisco IBSG는 변화의 요인으로서 BYOD의 진정한 가치는 직원에게 업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직원들은 원하는 장치,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회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BYOD를 지원하는 통제 모델을 바탕으로 BYOD를 발전시킨다면 회사에서는 단순히 직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이고 강력한 가치의 원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혁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BYOD

기존의 사무실 환경 또는 고정된 장소를 벗어난 업무 환경을 뜻하는 모바일 업무 환경은 오늘날의 지식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인터뷰한 회사의 직원들 중 47%가 공식적으로 “모바일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업무에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은 60%로⁵, “모바일 근로자”로 공식 분류된 비율보다 13%나 높습니다(그림 2 참조). 사용되는 장치 수가 이렇게 더 높은 것은 주로 직원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식적으로” 모바일 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상 업무에 모바일 환경을 접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IT 부서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바일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36%가 직원 요청에 따라 모바일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림 2. 모바일 근로자로 분류된 직원의 비율과 모바일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



출처: Cisco IBSG,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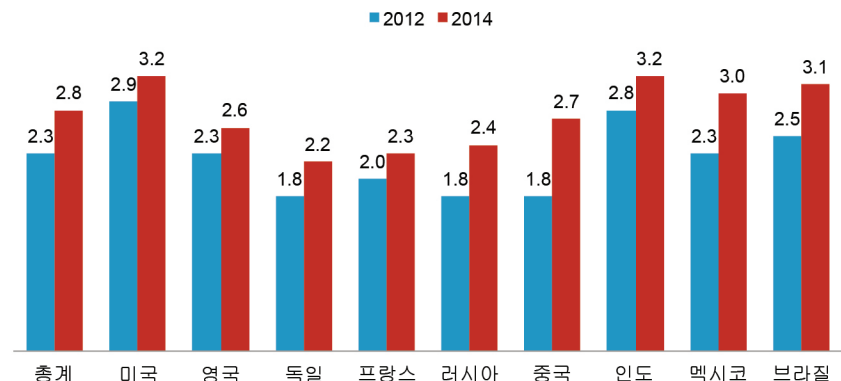
N = 4,892

중국의 경우 러시아 및 독일과 함께 현재 지식 근로자 1인당 모바일 장치 도입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향후 2년간 CAGR이 23%(1.8대에서 2.7대) 가까이 예상되어 장치 수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는 지식 근로자의 비율에서 미국과 인도가 다른 국가를 앞서고 있지만(70%) 중국과 멕시코도 크게 뒤쳐지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지식 근로자 중 50%만 모바일 장치를 사용합니다. 유럽 국가에서 모바일 및 BYOD가 상당히 보급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수용과 전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아직 뒤쳐져 있음을 조사 결과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 근로자는 단순히 모바일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랩탑,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복수의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IT 리더들은 직원 1인당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 수가 연평균 성장률(CAGR) 10.3%인 2012년 2.3대에서 2014년 2.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그림 3 참조). 이 수치에서도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상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경우 성장률 전망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업이 모바일 기술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이미 근로자 1인당 장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브라질이 직원 1인당 장치 수 2.5대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IT 리더들은 향후 2년 내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 및 독일과 함께 현재 지식 근로자 1인당 모바일 장치 도입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향후 2년간 CAGR이 23%(1.8대에서 2.7대) 가까이 예상되어 장치 수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 항목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가장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림 3. 2012년과 2014년의 지식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결된 장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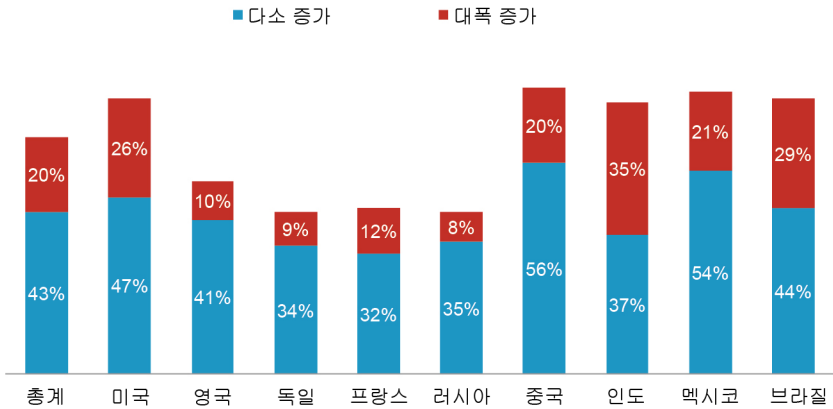
출처: Cisco IBSG, 2012

N = 4,892

이러한 사용자 1인당 장치 수 증가는 크게 봤을 때 BYOD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직장 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중 42%, 랩톱 중 38%가 직원 소유의 장치입니다. 이는 BYOD가 새롭게 등장한 추세의 단계를 넘어 이미 전 세계 기업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IT 리더들 중 63%가 직원 소유의 장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2년 내에 BYOD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림 4 참조).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재 도입률과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해당 국가에서 BYOD가 확고한 접근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림 4. 직원 소유의 장치 비율이 향후 2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회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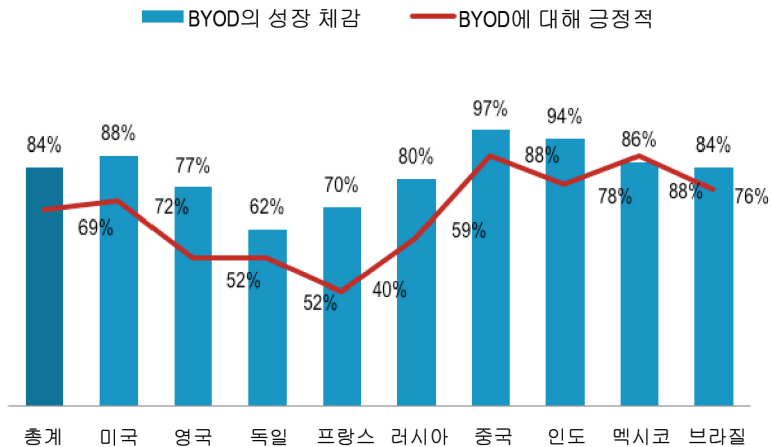


출처: Cisco IBSG, 2012

N = 4,892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재 도입률과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해당 국가에서 BYOD가 확고한 접근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특히 BYOD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한 IT 의사 결정권자 비율이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과 랩탑 중 50%가 직원 소유인 인도의 경우 35%, 주요 모바일 장치 중 40% 이상이 직원 소유인 브라질의 경우 29%에 달합니다. 유럽 국가는 BYOD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IT 의사 결정권자들은 유럽이 남미 및 아시아 국가에 비해 향후 2년 동안 성장률 전망치도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림 5. BYOD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IT 리더의 비율과 BYOD의 추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IT 리더의 비율



출처: Cisco IBSG, 2012

N = 4,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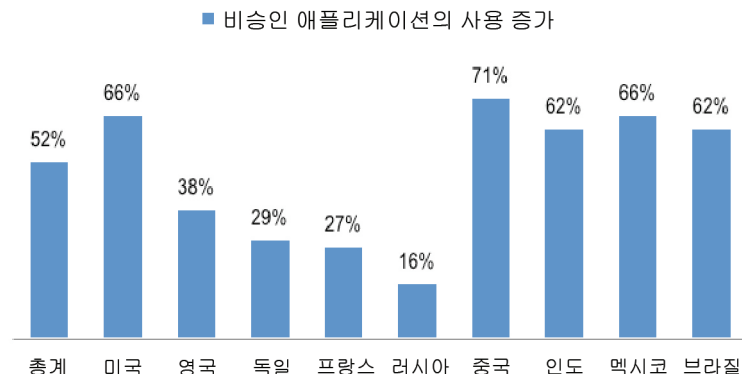
직원이 사생활과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은 BYOD의 주요 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연구 조사에 참여한 IT 리더들 중 84%가 자사 내에서 BYOD가 확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그림 5 참조). IT 의사 결정권자마다 예상하는 BYOD 성장 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84%가 점점 더 많은 직원이 개인용 장치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BYOD 추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유럽에서조차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62%에서 80%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유럽 IT 리더들이 다른 국가의 IT 리더들보다 상대적으로 BYOD의 보급을 덜 체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Cisco 자체적으로는 회사 IT 부서에서 직원 소유의 장치를 허용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바일 장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⁶. IT 지원을 통해 BYOD를 뒷받침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YOD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BYOD의 성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원 소유의 장치 수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IT 리더들 중 52%는 비승인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도 2년 전보다 “다소” 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그림 6). 직원들이 원하는 장치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선택하기를 바라고 때문에 비승인 애플리케이션 수도 자연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완벽한 툴킷을 제공하더라도 직원들이 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서비스가 수천 가지에 달합니다. 직원들은 Apple과 Google이 서비스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즉각적으로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개인용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늘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장치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직원이 사생활과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은 BYOD의 주요 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림 6. 비승인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다소” 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답한 회사의 비율



출처: Cisco IBSG, 2012

N = 4,892

특히 회사에서 제공되는 도구가 제한적이거나 불충분할 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협업 도구를 사용하면 직원에게 이로운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협업의 “고립된 섬”을 여러 개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럽 국가와 다른 조사 대상국 간에 비승인 애플리케이션의 보급 현황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IT 리더 중 16%만 비승인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했다고 답한 반면, 중국은 7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개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요구되는 대역폭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기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미디어 사용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IT 부서에서 네트워크 관리와 리소스 계획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치 수의 증가와 비승인 리치 미디어가 맞물려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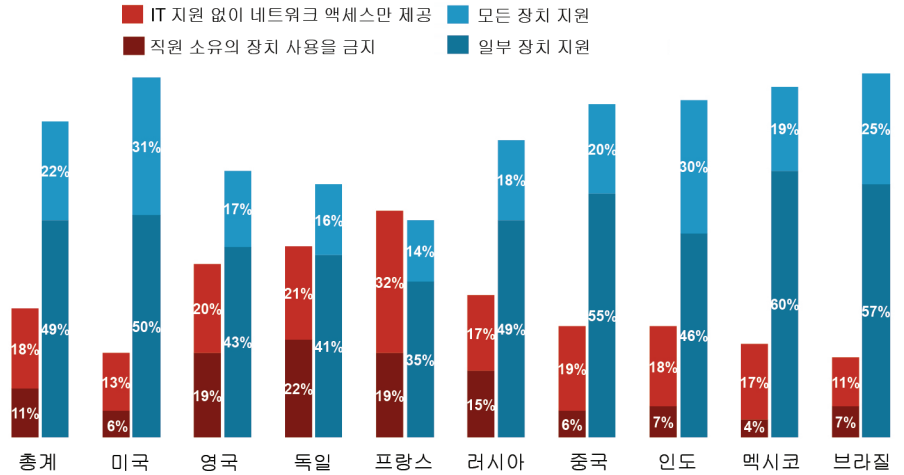
비승인 협업 도구의 증가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보완하거나 경우에 따라 완전히 대체할 목적으로 인스턴트 메시징, 파일 관리, 모바일 화상 회의, 클라우드 기반 협업 서비스를 사용하는 직원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특히 회사에서 제공되는 도구가 제한적이거나 불충분할 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협업 도구를 사용하면 직원에게 이로운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협업의 “고립된 섬”을 여러 개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회사 IM, 회사 디렉토리, 회사 소셜 소프트웨어, 화상 협업 도구 등에 비승인 협업 도구를 통합하여 이러한 “고립된 섬”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중국, 인도, 멕시코와 같은 국가의 IT 리더들이 유럽의 IT 리더들보다 업무에 사용되는 직원 소유의 장치와 애플리케이션 수를 높게 답한 데는 그러한 장치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데 더 적극적인 태도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BYOD가 IT 부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는 IT 리더의 비율이 독일과 영국은 52%, 프랑스는 40%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이외 국가에서는 80%가 BYOD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의 경우 32%가 BYOD에 “매우 긍정적”인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경우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10%에 불과합니다.

BYOD가 IT 부서에 제공하는 이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직원 소유의 장치를 지원하는 방식과 지원 여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IT 리더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BYOD가 확고하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네트워크에서 직원 소유의 장치를 허용하는 수준부터 모든 직원 소유의 장치에 대한 완벽한 IT 지원을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BYOD를 지원하는 IT 리더가 90%에 가깝습니다. 직원 소유의 장치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미국과 인도의 경우 조사 대상 기업 중 30%가 모든 장치에 대해 IT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의 측면에서 가장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인 브라질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업 중 82%가 직원 소유의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림 7 참조).

BYOD의 잠재적인 혜택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 모바일 정책의 모호성을 들 수 있습니다. . . .

그림 7. 직원 소유 장치에 대한 회사 IT 지원 수준



출처: Cisco IBSG,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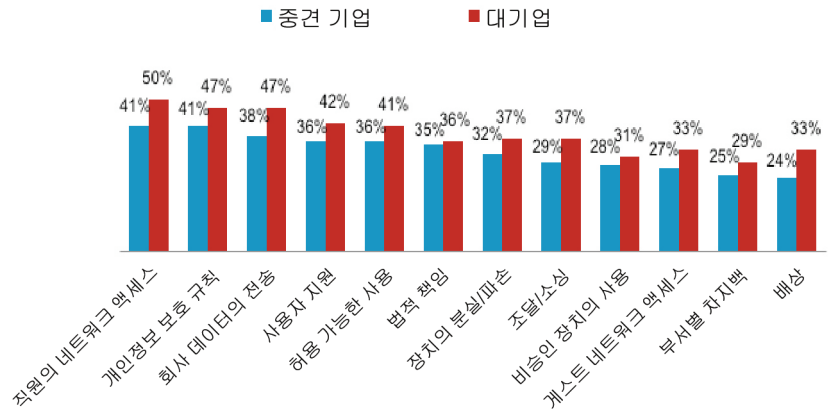
N = 4,892

IT 리더들이 BYOD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직장 내에서 직원 소유의 장치 사용을 금하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은 일절 제공하지 않고 네트워크 액세스만 제공하는 회사의 비율이 높습니다.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면 직원이 직장에서 개인 장치를 사용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회사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운로드할 수도 없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의 생산성은 저하됩니다. 따라서 **선순환**(BYOD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우호적인 네트워크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혜택이 늘어나고 열정이 높아지는 현상)과 **악순환**(BYOD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엄격한 정책과 영향력 차단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초기의 비판적인 생각에 힘을 실어 주게 되는 현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BYOD의 잠재적인 혜택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 BYOD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련된 모바일 정책의 모호성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 모바일 정책의 완성도와 관련해서 대기업이 중견 기업보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림 8 참조). 이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많은 분야에서 중견 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근소했다는 것은 중견 기업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YOD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이니셔티브에 기초가 되는 몇몇 분야에서 너무 많은 회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장치를 통한 직원의 네트워크 액세스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한 회사는 대기업 중 절반, 중견 기업 중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림 8. 회사의 모바일 장치/모바일 정책에서 다루는 분야



출처: Cisco IBSG,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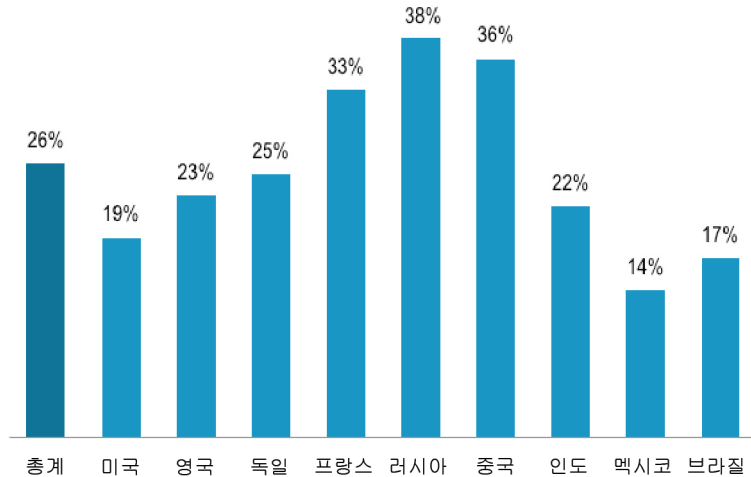
N = 4,892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대기업과 중견 기업 모두 완성도 높은 모바일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BYOD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이니셔티브에 기초가 되는 몇몇 분야에서 너무 많은 회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장치를 통한 직원의 네트워크 액세스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한 회사는 대기업 중 절반, 중견 기업 중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무단 장치의 사용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도 3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정책과 많은 경우 정책이 아예 수립되지 않았다는 문제는 BYOD가 보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맬웨어, 네트워크 침입 등 회사 데이터의 보안을 위협하는 신종 위험 요소는 IT 리더가 꼽은 BYOD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그림 9 참조). 회사 네트워크 보안에 BYOD가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위험이 유럽에서 BYOD의 추세를 완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 국가들은 BYOD가 회사 네트워크의 보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회사들의 경우 잠재적인 비용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고 믿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우려가 BYOD를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IT 리더들이 꼽은 BYOD의 주된 이점은 생산량의 증가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직원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림 9. 보안을 BYOD와 관련한 가장 주된 과제로 꼽은 회사의 비율



출처: Cisco IBSG,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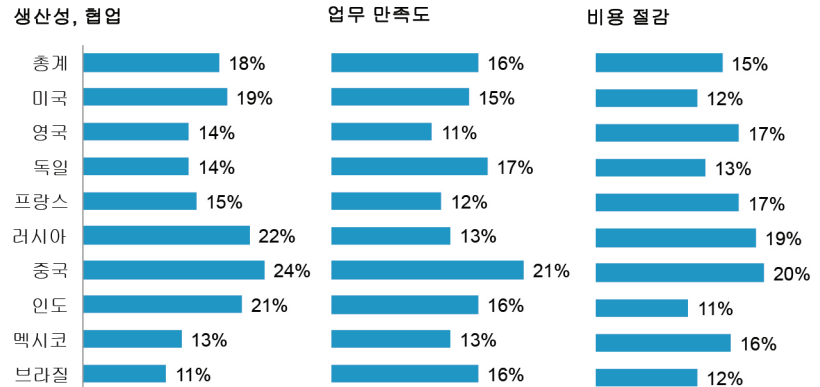
N = 4,892

IT 리더들은 회사에서 BYOD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으로 특히 세 가지 항목을 꼽았습니다⁷(그림 10 참조).

- **생산성:** 대체로 IT 리더들은 생산량의 증가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BYOD의 주된 이점으로 생각했습니다. BYOD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예: 소셜 네트워크 이용, 게임 플레이, 사적인 이유 또는 오락을 목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이트 사용)가 직원의 업무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업무 만족도:** 직원들은 사생활에서 사용하는 장치를 업무에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용할 장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직장에서의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비용 절감:** 직원이 모바일 장치 비용 중 일부(또는 전부)를 부담 및 IT 리소스 사용의 향상에 따른 모바일 비용의 절감이 평균적으로 업무 만족도에 이어 세 번째 이점으로 꼽혔습니다. 비용 절감을 큰 이점으로 꼽은 나라는 여러 곳이었으나 특히 프랑스나 영국과 같이 BYOD에 반응이 상대적으로 냉담한 국가에서 가장 큰 이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장치의 종류, 사용 방법, 사용 장소, 사용 시점 등을 직접 결정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림 10. BYOD가 회사에 제공하는 주된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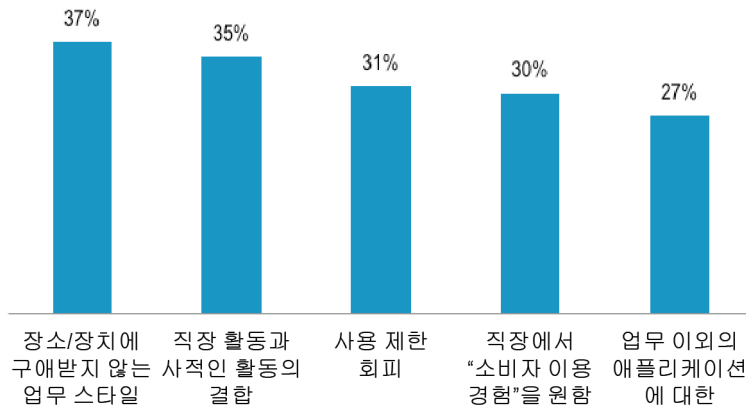


출처: Cisco IBSG, 2012

N = 4,892

IT리더들이 꼽은 직원들이 BYOD를 수용하는 주된 동기 부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장치의 종류, 사용 방법, 사용 장소, 사용 시점 등을 직접 결정하고자 한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직원들이 개인용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는 주된 이유



출처: Cisco IBSG, 2012

N = 4,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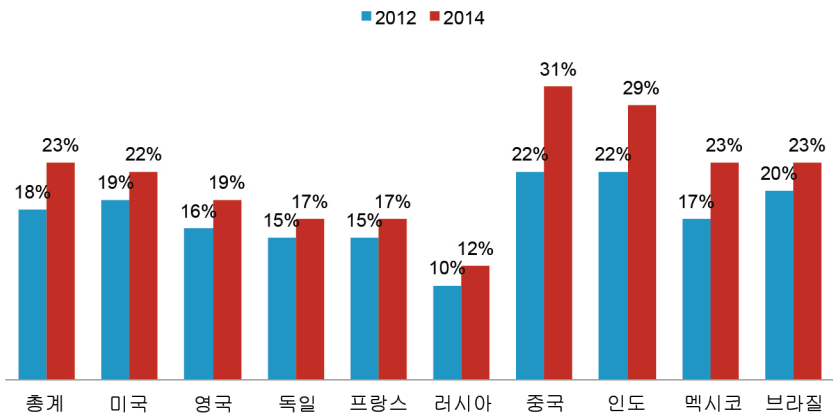
또한 일과 중이나 야간에도 사적인 활동에서 업무 활동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적인 용무를 할 수 있고, 사적인 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식 근로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친구, 가족, 동료들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개인 장치를 소지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 특히 BYOD가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게다가 IM 같은 모바일 연락 애플리케이션이 발달하면서 직원을 즉각적으로 찾아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지식 근로자들은 물리적으로는 사무실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자리 비움”인 상태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와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는 몇몇 국가에서 IT 예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은 개인용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제한 없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BYOD가 매력적인 이유는 태생적으로 개인용 콘텐츠와 업무용 콘텐츠가 공존하는 직원 소유 장치의 특성상 직원이 소유하는 장치로 인해서 회사 소유의 장치에서 액세스하고 다운로드하고 사용 가능한 콘텐츠의 명확한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점입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BYOD를 통해 중요한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이미 경험했듯이, 장치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네트워크 대역폭의 증가도 동반합니다. 모바일 장치와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는 몇몇 국가에서 IT 예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그림 12 참조). 이 연구 조사에서 IT 리더들은 IT 지출에서 모바일 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의 18%에서 2014년에 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모바일 예산에서 IT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2012년 두 나라 모두 22%에서 2014년에는 각각 31%와 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국가는 모바일 분야, 특히 BYOD의 잠재적인 이점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예산이 확대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12. 모바일 이니셔티브 관련 모바일 예산 지출 비중



출처: Cisco IBSG, 2012

N = 4,892

특히 중국은 직원당 장치 수 비율이 1.8에 불과하지만 예산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 기업들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출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모바일 이니셔티브의 중요도가 낮은 것과 맞물려, 전체 IT 지출에서 모바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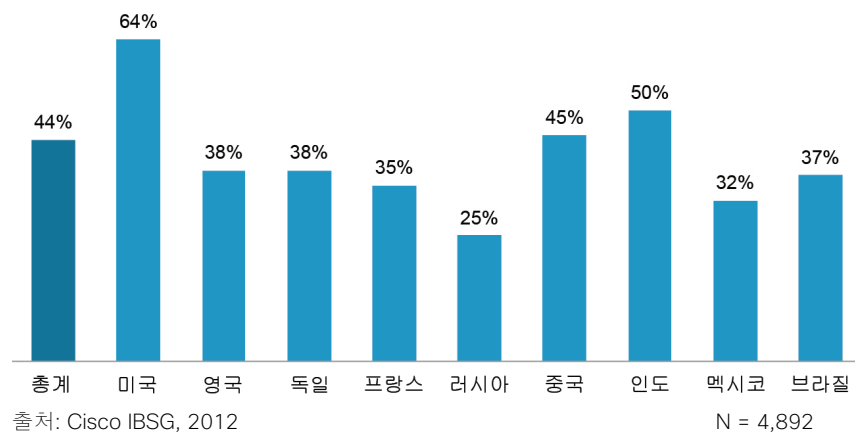
데스크탑 가상화는
여러 측면에서 BYOD와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데
기업이 회사 서버에
상주하는 단일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이 연구 조사에서는 데스크탑 환경과 장치를 서로 분리하여 장소와 사용하는 장치에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인 데스크탑 가상화⁸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는 나머지 설문조사 대상 국가와 1차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미국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한 인식은 IT 리더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지만 데스크탑 가상화 전략의 시행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미국의 경우 데스크탑 가상화 전략의 시행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이 51%에 달합니다. 다음은 인도와 중국으로, 각각 40%와 36%에 이릅니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가 데스크탑 가상화 시행에 “뒤쳐진” 이유는 미국 IT 리더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지식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대부분의 지식 근로자가 데스크탑 가상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BYOD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고 IT 리더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데스크탑 가상화가 제공하는 이점을 이해하게 되면 이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는 여러 측면에서 BYOD와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데 기업이 회사 서버에 상주하는 단일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 데이터와 작업 파일도 서버에 상주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 필요한 데이터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치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는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더 적합한 배포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보안 정책과 도구는 네트워크의 인텔리전스와 보안을 높여 BYOD를 가능케 하는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

IT 리더에게 시사하는 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누가 어떤 장치를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할지를 통제하는 모바일 정책을 갖춘 비율은 대기업이 50%, 중견 기업이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정책의 부재는 대부분의 모바일 장치가 회사 소유인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향후 개인용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보안, 지적 재산, 회사 데이터에 미치는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나쁜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IT 리더가 합법적인 장치와 그렇지 않은 장치를 식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안 정책과 도구는 네트워크의 인텔리전스와 보안을 높여 BYOD를 가능케 하는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 BYOD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보안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 정책 관리:**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모두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자 유형 (예: 게스트, 다중 직원 프로필)을 인식하는 단일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IT 시스템에서 단일 정책 플랫폼을 제공하면 “모바일 정책 격차”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하고 BYOD 환경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 정책 관리 기능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모든 모바일 장치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 **회사 네트워크 액세스 및 서비스 보안/제공:** BYOD 환경에서는 IT 부서가 사용자의 프로필과 장치에 따라 회사 네트워크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치 보호:** 회사 소유의 장치와 직원 소유의 장치를 모두 보호하는 장치 수준에서의 추가 보안 단계도 중요한 회사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바일 장치 관리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자는 분실 또는 도난 장치로부터의 액세스를 거부하고 해당 장치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전송 보안:** 유/무선으로 연결된 장치에서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장치나 위치에 관계없이 모바일 사용자에게 회사의 중요한 기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BYOD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소지한 장치와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네트워크의 수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 기능을 이용하여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장치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모바일 협업:** 직원들은 각종 장치와 도구를 사용하여 동료와 협업을 진행합니다. IT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원들이 적절한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YOD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자칫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일로에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IM 계정을 사용하고 음성 메시지에 액세스하고 온라인 접속 여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협업 도구를 갖춘다면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고 이점만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바일 문화 속에서, 특히 BYOD 환경에서는 회사 네트워크의 범위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협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 모바일 비디오 및 데스크탑 공유:** 장소와 장치에 관계없이 회의에 참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거나 보고, 화상 통화를 하는 기능은 60%가 모바일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는 지식 근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항상 촉박한 일정으로 움직이고 출장이 잦은 경영진의 경우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형식의 회의에 참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바쁜 와중이나 이동 중에 즉각적이고 충분한 협업 세션을 진행할 수 없다면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사업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바일 문화 속에서, 특히 BYOD 환경에서는 회사 네트워크의 범위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협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 앞서 보았듯이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장치 수가 근로자 1인당 2.3개에서 2.8개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에 따라 최적의 장치(랩톱, 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장치의 증가와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특히 지식 근로자들이 비디오 협업 도구,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 대역폭을 많이 소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장치가 이제 구내/외에서 유선, Wi-Fi, 3G/4G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증가한 대역폭과 갈수록 많아지는 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장치가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바일 예산을 줄이기 위해 유무선 융합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용하는 회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무선 전화 트래픽과 Wi-Fi 트래픽을 통합하고 모바일 장치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융합 네트워크의 경우 회사의 BYOD 요구 사항이 커지면서 고급 사양이 아니 필수적인 사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여러 장치에 걸친 호환성과 지원을 위한 데스크탑 가상화:** 개인용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이 늘면서 운영 체제와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한 호환성 문제가 IT 부서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는 직원이 사용하는 장치에 관계없이 액세스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로 구성된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함으로써 IT 부서가 이러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직원들이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에서 장치로 직접 전송됩니다. 이 솔루션은 장치가 회사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도록 할 뿐 아니라, 데이터는 장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고 장치는 가상 클라이언트로 작동하게 되어 장치의 보안도 강화됩니다. 직원은 자신의 소유든 회사에서 제공했든,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장치를 회사 IT 부서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직원 소유의 장치에 대해 IT 지원을 제공하는 회사는 현재 22%에 불과합니다. 가상 데스크탑 기술을 활용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의 장치에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담당자가 데스크탑을 유지 관리하며 회사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장치 지원은 사용자 본인의 몫으로 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BYOD의 이점을 활용하여 유능한 직원을 유치하고 이직을 줄이는 한편, 직원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경영진 입장에서의 의미

결국 직원은 어디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만날 수밖에 없거나 몇 안 되는 장치와 애플리케이션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처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은 크게 신경 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장치가 정교해지고 사용하기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의 폭도 넓어져 회사에서 정한 도구만 사용하도록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최적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 일과 시간 중 가장 편한 시간에 업무를 완수할 것을 회사에서 신뢰해 주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은 자유와 통제권, 융통성을 원하지만, IT 리소스 할당과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이를 꺼립니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실로 막대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BYOD는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가족에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YOD는 그 특성상 재택 근무나 탄력 근무제와 같은 “가정 친화적인” 정책과 잘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BYOD의 이점을 활용하여 유능한 직원을 유치하고 이직을 줄이는 한편, 직원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isco IBSG는 이러한 이점 외에, 직원에게 사용할 장치,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주도의 혁신은 단순히 언제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위로 확대됩니다. BYOD를 통해 직원은 모바일 장치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거나,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최적의 도구를 찾거나, 결정이 이루어진 후 실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화상 회의를 녹화하는 등 수많은 방법으로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향식 혁신의 잠재력은 막대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저렴해지고 성능은 높아지는 장치, 몇 달러에 불과한 가격으로 엔터프라이즈급 성능과 완성도를 제공하는 수천 가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비전문가가 직접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 등 필요한 도구도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2012년 가을에 예정된 Cisco IBSG Horizons BYOD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서 Cisco IBSG는 BYOD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주도의 혁신과 생산성 측면의 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 내용도 수록됩니다. 이 분석 자료를 통해 IT 및 비즈니스 리더들은 현재 진행 중인 BYOD 이니셔티브의 가치와 앞으로 BYOD 정책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개선하여 BYOD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BYOD를 단순히 회사들이 반응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국: 2012년 지식 근로자 1인당 1.8대에서 2014년 2.7대로, 가장 높은 모바일 장치 증가세

인도: 모바일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음: 69%

부록 1: 지역별 요약 – 아시아

이번 설문 조사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있는 두 경제국인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IT 리더들은 BYOD를 적극 지지하며 BYOD가 회사와 부서에 제공할 이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각 국가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조사 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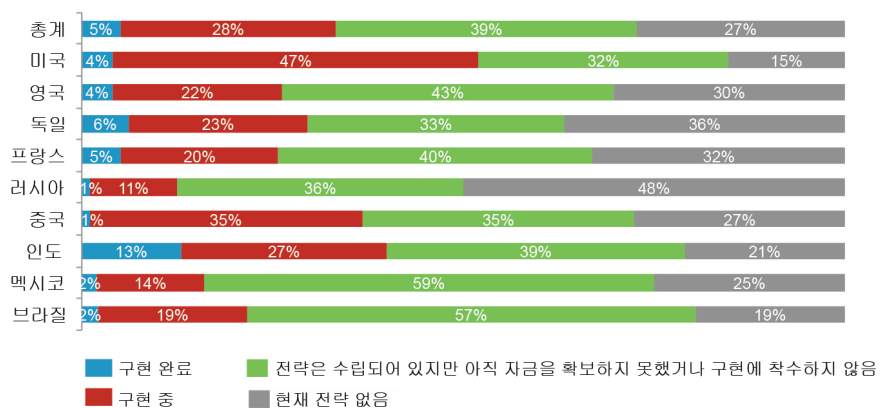
중국

- 2012년 지식 근로자 1인당 1.8대에서 2014년 2.7대로, 가장 높은 모바일 장치 증가세
- BYOD가 회사에 제공하는 이점에 가장 낙관적인 태도: 직원 생산성(24%), 직원 만족도(21%), 비용 절감(20%) 측면의 체감하는 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음
- 2012년 22%에서 2014년 31%로 총 IT 지출에서 모바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세가 가장 높음
- 향후 2년 동안 BYOD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음: 76%

인도

- 인도 회사 중 30%가 모든 직원 소유의 장치 지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
- 모바일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음: 69%
- 미국과 함께 지식 근로자 1인당 연결된 장치 수 비율이 가장 높음: 2012년 2.8대, 2014년 3.2대
- 가장 높은 데스크탑 가상화 구현율: 가상화 전략을 완전하게 구현한 비율 13%, 구현 과정에 있는 회사의 비율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그림 14 참조)

그림 14. 회사들의 데스크탑 가상화 전략 구현 정도



출처: Cisco IBSG,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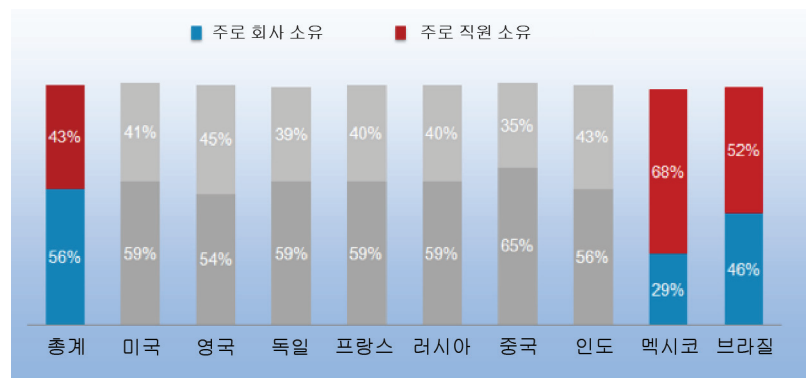
N = 4,892

브라질: 2014년까지 지식 근로자 1인당 연결된 장치 수가 3.1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 가까운 높은 수치

부록 2: 지역별 요약 – 남미

이번 설문 조사에는 2개 거대 남미 국가, 멕시코와 브라질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브라질의 IT 리더들도 BYOD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회사들은 현재 회사당 BYOD 도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용되는 장치가 주로 회사 소유인지, 아니면 직원 소유인지를 묻는 질문에 직원 소유의 장치라고 답한 비율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가장 높았습니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회사 소유 장치 또는 직원 소유 장치가 주종을 이루는 회사의 비율



출처: Cisco IBSG, 2012

N = 4,892

멕시코: IT 리더 중 88%가 IT 부서에 미치는 BYOD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조사 대상 국가 중 중국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

브라질

- 2014년까지 지식 근로자 1인당 연결된 장치 수가 3.1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에 가까운 높은 수치
- 모든 직원 소유의 장치를 지원하는 회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음(25%)
- IT 리더들이 BYOD를 중대한 보안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며, 17%만 보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

멕시코

- BYOD의 가장 큰 이점은 비용 절감이라고 응답, 멕시코 기업의 직원 소유 장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
- IT 리더 중 88%가 IT 부서에 미치는 BYOD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조사 대상 국가 중 중국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
- 지식 근로자당 장치 수의 증가세가 2012년 2.3대에서 2014년 3.0대로 높음
- 다른 모든 국가와 반대로 중견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숙하고 포괄적인 모바일 정책을 갖추고 있음

유럽의 기업들은 BYOD를 이용하여 직원 주도로 생산성, 협업 환경, 업무 이행 환경을 개선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습니다.

부록 3: 지역별 요약 – 유럽

유럽은 연구 조사에서 가장 일관된 결과가 나타난 지역입니다. 유럽의 IT 리더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원들에게 BYOD를 지원하는 데 가장 소극적이며, 가장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소유의 장치 수와 비승인 애플리케이션 수도 가장 적습니다. 한마디로, BYOD를 직원의 업무 수행 방식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BYOD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보안의 위험성이나 여러 장치 플랫폼을 관리하는 데 따른 복잡성의 증가와 같은 BYOD의 단점이 있지만, Cisco IBSG는 잘 계획된 BYOD 전략의 이점에 비하면 이러한 위험 요소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기업들은 BYOD를 이용하여 직원 주도로 생산성, 협업 환경, 업무 이행 환경을 개선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습니다.

영국

- 유럽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전체 장치 중 직원 소유의 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믿는 IT 리더의 비율이 가장 높음(51%)
- BYOD의 가장 큰 이점은 비용 절감이라고 응답
- 데스크탑 가상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비율은 중견 기업(7%)보다 대기업(29%)에서 훨씬 높게 나타남

프랑스

- 모바일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이 독일(5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52%)
- BYOD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IT 리더의 비율이 가장 낮음(40%)
- 직원 소유의 장치 사용을 금지하거나 다른 지원 없이 네트워크 액세스만 지원하는 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음(51%)

독일

- 조사 대상국 중 직원 소유의 스마트폰, 랩탑 및 태블릿 비율이 가장 낮음
- 직원 소유의 장치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음(22%)
-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BYOD의 이점이 “전혀 없다”고 답한 IT 리더의 비율이 직원 생산성 향상(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을 비롯한 이점을 꼽은 비율보다 높음

러시아

- 보안을 BYOD의 최대 과제로 꼽은 IT 리더의 비율이 가장 높음(38%)
- 데스크탑 가상화 구현 수준이 가장 낮음(데스크탑 가상화 전략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비율 48%), 가상화를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장 적게 봄

미주

1. 본 문서에서 “직원” 과 “지식 근로자” 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 근로자” 는 사무직 근로자, 관리자, 기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2. 세계적으로 모바일 장치를 구입하는 소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국의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 보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미국 44%, 캐나다 33%, 영국 51%, 프랑스 38%, 독일 29%, 러시아 25%(2011년), 중국 33%, 인도 23%(2011년), 멕시코 20%, 브라질 1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수치는 2012년 기준입니다(출처: Google/IPSOS). 2012년 기준 태블릿 보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42%, 캐나다 22%, 영국 28%, 독일 12%, 프랑스 19%, 러시아 3%, 중국 3%, 인도 2%, 멕시코 3%, 브라질 4%(출처: Strategy Analytics).
3. “BYOD and Virtualization: Top 10 Insights from Cisco IBSG Horizons Study” , Cisco IBSG, 2012년, <http://www.cisco.com/web/about/ac79/docs/BYOD.pdf>
4. 본 연구에 수록된 미국의 결과는 중견 기업 응답자 312명이 추가되어 당초 미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 모바일 장치에는 랩톱,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 출처: Cisco IT
7. Cisco IBSG는 2012년 가을에 BYOD Horizons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로, BYOD가 기업에 제공하는 이점을 수치화한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8. 데스크탑 가상화는 VDI(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HVD(호스트된 가상 데스크탑), DaaS(Desktop as a Service), 서버 기반 컴퓨팅 등으로 지칭됩니다.

Cisco IBSG Horizons 소개

Horizons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비즈니스 변화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멀티모달 리서치 및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Horizons의 멀티모달 접근 방식은 세 가지 핵심 부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1) 고객 설문조사, 표적집단, 주제별 전문가 인터뷰 같은 1차 리서치를 수행합니다. (2) 시장 선도업체 및 영향력 있는 업체에 대한 심층적인 2차 리서치를 수행합니다. (3) 예측 분석을 적용하여 기술 혁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향을 수량화합니다.

Cisco IBSG “BYOD 및 가상화” Horizons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Joseph Bradley

Cisco IBSG Research & Economics Practice
josbradl@cisco.com

Jeff Loucks

Cisco IBSG Research & Economics Practice
jeloucks@cisco.com

James Macaulay

Cisco IBSG Research & Economics Practice
jmacaula@cisco.com

Richard Medcalf

Cisco IBSG Research & Economics Practice
rmedcalf@cisco.com

Lauren Buckalew

Cisco IBSG Research & Economics Practice
labuckal@cisco.com

추가 정보

Cisco IBSG(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 그룹)는 업계를 형성하는 선도적인 통찰력 리더십 및 CXO 레벨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설계 및 육성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시장 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전략, 프로세스 및 기술을 연계하여 Cisco IBSG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 고객이 가치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전향적인 의사 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IBS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ibsg>를 참조하십시오.



미주 지역 본부
Cisco Systems, Inc.
캘리포니아, 산호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Cisco Systems (USA) Pte. Ltd.
싱가포르

유럽 지역 본부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Amsterdam,
네덜란드

Cisco는 전 세계에 200여 개 이상의 지사가 있습니다. 각 지사의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는 Cisco 웹 사이트 www.cisco.com/go/offices에서 확인하십시오.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cisco.com/go/trademarks 로 이동하십시오. 언급된 제 3자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소유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Cisco와 다른 회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110R)